

미얀마 꺼잉(Kayin)족의 범위와 종족정체성

김인아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1. 머리말

종전에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꺼잉(Kayin)족¹은 미얀마에서 가장 고질적이고도 첨예한 종족 분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소수종족으로, 미얀마 역사 속에서는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정부군에 대항해 강력한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해온 정치집단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1947년부터 미얀마 정부군과 꺼잉족 무장반군의 치열한 내전이 계속 되어왔고, 그런 와중에 수많은 꺼잉족이 삶의 터전을 잃고 현재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에 걸쳐 10개가 넘는 난민캠프에 약 4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얀마 내 꺼잉족 분쟁의 문제는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및 NGO 등 많은 서구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꺼잉이란 종족집단은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복잡한 개념을 지닌 종족이다. 사실 꺼잉족의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분리주의 운동과는 무관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얀마 역사 속에서 그들 하위집단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꺼잉족으로 분류되기를 강력하게 거부해왔다.

오늘날 꺼잉족의 개념은 19세기 초 유럽에서 비교언어학자들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집단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원에 따라 분류하기를 선호했던 언어학적 유산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계통상 티베트-버마어파(Tibet-Burman)의 꺼잉어군(Kayinic)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을 ‘꺼잉’으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꺼잉족의 경우 대부분이 자체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꺼잉어군의 범위도 언어학자들 간에 의견이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게다가 미얀마에서도 산지, 평원 및 델타 등 대대로 살아오는 터전으로서의 영토가 다양하고, 그 하위분류들 간에는 언어, 종교, 관습, 생계경제 유형, 정치구조 등 그 문화적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기존의 언어학적 근거는 꺼잉족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이처럼 꺼잉족의 종족범위는 매우 느슨하다. 2010년에 발생한 민주꺼잉불교군(Democratic Kayin Buddhist Army)과 미얀마 정부군과의 충돌 같이 반정부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꺼잉족의 경우는 오늘날에도 물리적 충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임에 비해, 꺼잉족 내부 하위집단들의 경우는 지난 수십 년간 자치권의 요구, 차이의 인정에 대한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꺼잉족 하위집단들의 분리 및 이탈에 대한 욕망은 적어도 제2차 영국-미얀마 식민전쟁이 종식된 185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로 여전히 존재한다. 꺼잉족으로 분류되었던 하위집단인 꺼잉니(Kayin-ni)족과 빠오(Pao)족처럼 꺼잉족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종족집단의 경우가 그 예이다. 꺼잉니족의 경우 이미 1950년 2월 헌법 개정 이후 까야(Kayah)족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의 자치주를 획득하는 등 꺼잉족의 범주에서 이탈한 별도의 종족집단으로 인정을 받았다. 빠오(Pao)족의 경우 역시 과거부터 꺼잉족의 범주에서 이탈하여 별개의 종족집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짙었던 종족으로, 2008년 신헌법개정에서 자치행정구역(self-administrated zone)을 부여받고 새로운 종족성을 형성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꺼잉족의 또 다른 하위집단인 바다웅(Padaung)족이나 꺼잉부

¹ 꺼잉족은 ‘카렌’(Karen)족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Kayin-byu)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꺼잉족의 종족경계에 관하여 고찰된 연구가 전무하여 꺼잉족에 포함되는 하위집단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라 일반적으로 각종 자료나 논저에서 몰이해적으로 꺼잉이란 용어를 통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꺼잉족의 종족정체성 고찰에 관한 연구가 지니는 시의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향후 미얀마 같은 다종족사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사회 내부에서 꺼잉족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종족문제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료의 부족으로 각 하위종족별로 종족성의 외부적 표출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시론으로 삼는다.

2. 광의적(廣義的) 개념과 범위

1) 언어계통상의 분류

19세기 초 유럽에서 비교언어학 연구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은 모든 인간집단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원에 따라 분류하기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꺼잉족 역시 언어적 개념으로 분류된 집단들을 통칭한다. 즉, 꺼잉족이란 중국-티베트어(Sino-Tibetan)족, 티베트-버마어(Tobeto-Burman)파의 꺼잉어군(Kayinic)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이들은 모두 공통의 조어(祖語)를 가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마샬(Marshall)의 분류에 따르면 꺼잉어군은 다시 스고(Sgaw), 뽀(Pwo), 브웨(Bwe) 등 세 하위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하위 집단인 빠꾸(Paku)족은 스고족의 범주에 포함되고, 따웅두(Thaungthu)라고도 불리는 빠오족은 뽀족에, 버다웅족과 꺼야족은 브웨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베네딕트(Benedict)는 위의 분류 방법에서 따웅두를 뽀족의 하위 집단이 아닌 별개의 독특한 언어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테일러(Taylor) 역시 꺼잉어군의 분류방법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는 꺼잉어군의 하위집단을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자예잉(Zayein), 모뽀와(Mopwa), 꺼잉니(Kayin-ni) 세 개 어족에 더하여 꺼잉뷰(Kayin-byu)와 브웨, 브렉(Brek)을 동일한 하나의 어족으로, 버다웅과 잉보(Yinbaw), 게꼬(Gheko)를 역시 동일한 어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언어의 분류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꺼잉어군의 대부분이 문자가 없으며, 따라서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된 문자로는 오직 뽀어와 스고어만 전해지고 있으며, 그 이외 대부분은 음성을 분석하거나 구전되는 설화나 신화의 내용을 통하여 추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나 설화의 내용 역시 하위 집단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꺼잉족이 아닌 와(Wa)족이나 친(Chin)족 같은 타 집단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꺼잉족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꺼잉족의 하위집단의 분류 역시 매우 다양하여 논란의 여지를 띠고 있다. 미얀마 종족집단 연구자인 민나웅(Min Naung)에 따르면 꺼잉족 하위종족은 15개로 나눌 수 있으나, 하위종족집단의 한 종족이었던 빠오족의 경우는 미얀마가 독립을 획득한 직후 별도의 종족집단으로 분화되어 꺼잉족의 범주에서 이탈하였고 꺼야족의 경우도 역시 독립 이후 꺼잉족 범주에서 분화되었으므로, 꺼잉족의 하위집단은 총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1년 영국 식민정부가 조사한 인구조사통계에서 나타난 꺼잉족의 하위종족은 무려 16개에 달할 정도로 그 하위분류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표 1> 1931년 영국 식민정부의 인구조사에 따른 껀잉족 하위종족과 인구수

하위종족	남성	여성
스고 (Sgaw)	251,106	248,560
빠꾸 (Paku)	4,377	4,243
웨와 (Wewaw)	-	-
모네쁘와 (Monepwa)	1,080	1,046
브웨 (Bwe)	3,136	3,091
브렉 (Brek)	3,234	3,461
껀잉뷰 (Kayin-byu)	7,797	7,502
뽀 (Pwo)	236,103	237,617
모쁘와 (Mopwa)	2	-
따웅두 (빠오)	111,107	111,607
버다웅 (껀양)	8,409	8,076
잉보우 (Yinbaw)	1,472	1,450
게꼬 (Gheko)	1,997	2,078
껀잉니 (Kayin-ni, Kayah)	14,742	16,814
자예잉 (Zqyein, Kayinnet)	2,008	1,729
땄라잉 깔라시(Talaing-Kalasi)	45	28
기타	22,466	24,560
합계	669,081	671,985

물론 영국 식민정부의 껀잉족 분류방법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당시의 껀잉족의 분류가 언어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버마어를 사용하는 상당수의 껀잉족 인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껀잉족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저지대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껀잉족의 경우 버마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일상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버마족과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많은 수가 버마족으로 흡수되기도 했다. 또한, 영국은 1826년 미얀마 양더보(Yangthabo)에서 휴전조약을 체결하여 여카잉과 함께 양도받은 미얀마 하부지역인 떠닝다이(Taninthayi)를 3개의 관구(district)로 분할하여 각 관구마다 부판무관을 파견하여 관할하게 하였는데, 이 당시 소수종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영국 관리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소수종족들을 모두 껀잉족으로 규정하여 관할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 껀잉’의 경우는 당시 미얀마 하부지역에 거주하던 여러 소수종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국인들이 껀잉족의 하위집단으로 명시해둔 ‘땄라잉 깔라시(Talaing-Kalasi)’의 경우 역시 위 시기에 떠닝다이 등지에서 거주하던 몽(Mon)족들을 편의상 껀잉족으로 분류해 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껀잉니족과 빠오족(그림 1), 버다웅족 등 같은 일부 하위집단은 껀잉족의 범주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종족성을 형성하려는 성향이 짙었고, 따라서 더 이상 껀잉족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등 종족 내 흡수 및 이탈의 현상을 나타냈으나 영국식민정부의 껀잉족 하위종족분류 작업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그림 1> 빠오족



이와 같이 당시 언어의 차이에 따른 꺼잉족의 하위종족 분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꺼잉족 종족성의 느슨함으로 인해 미얀마의 인구조사통계에 따른 꺼잉족의 전체 인구 수치 역시 종족적 진위성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1년을 시작으로 10년마다 시행한 미얀마의 인구조사통계에 의하면 꺼잉족의 인구수는 매 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식민주의가 식민정부수립 초기에 미얀마 하부 저지대의 윤택한 지역으로 산지의 꺼잉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 당시에 미얀마 하부지역은 미국 침례교의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친 곳이었으며, 여기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꺼잉족들이 이후에 식민정부의 하위직 관리로 고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행정적 혜택의 수혜자 집단으로 떠오르자 이것이 주변의 타 종족집단들의 종족정체성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 식민정부는 행정체도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군대조직에 철저히 버마족을 소외시키고 상대적으로 영국식민정부에 꺼잉족을 포함한 소수종족들을 기용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때에도 당시에 종족정체성이 희미했던 여타 종족집단들이 식민정부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꺼잉족으로 자신의 종족정체성을 전환한 종족들이 증가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꺼잉족 인구급증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43년도 일본의 점령하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 의하면 꺼잉족의 총 인구수가 약 3백만 명까지 폭증하게 된다.

<표 2> 1901-1931년 미얀마 꺼잉족의 인구수 변화조사

년도	1901	1911	1921	1931
인구수	904,424	1,099,048	1,220,356	1,367,673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에 언어계통에 따른 꺼잉족의 종족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며 느슨하다는 인상이 짙다.

2) 종교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껀잉족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들의 일부가 신봉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요소를 통해 껀잉족을 한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1947년 2월 5일 미얀마 독립 초기에 결성된 껀잉민족연합(Kayin National Union, 이하 KNU) 같은 정치이념집단이 주로 기독교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격렬한 분리 독립운동 등을 통해 외부세계에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껀잉집단으로의 기독교의 이식은 19세기 영국의 식민지배 이후 기독교 선교활동을 위해 미얀마 고산지대로 유입해진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일어났다. 1931년 영국 인구조사통계에서 나타나는 종족별 종교분포조사에서 나타나는 기독교도들의 비율은 전체 껀잉족의 약 30퍼센트에 달하며, 이들의 숫자는 미얀마 독립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껀잉족 전체 인구수치의 급증 현상 역시 종교적 요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1년 조사된 껀잉족의 인구는 불과 10여년 만에 무려 160만여 명이나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껀잉족 내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집단의 구성원들 스스로도 기독교라는 세계종교가 그들의 종족정체성을 설명해주는 핵심 요소라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영국인들로부터 유입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껀잉족의 종족성은 미얀마 독립 이후 껀잉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로 전통적으로 상좌부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스고족과 뽀족 가운데에도 기독교도들이 약 15~20퍼센트로 추정되고 있다. 1950년도에는 전체 껀잉족의 불교도와 기독교도들의 수는 각각 약 100만 명과 2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껀잉족의 내부를 살펴보면 그들의 종교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전체 껀잉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스고족과 포족은 대부분이 상좌부불교도이며 그들은 버마족, 산족, 몽족과 전통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어오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아왔다. 그 이외 껀잉족의 대부분 집단들은 정령신앙을 믿고 있으며, 뽀족의 일부 집단 가운데는 서북부 해안지대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방글라데시나 인도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아 이슬람을 신봉하는 자들도 있다.

특히 하위 집단 가운데 껀잉니족(그림 2)의 경우가 흥미로운데 이들은 이웃하는 산족의 종교적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 상좌부불교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집단으로, 근대 이후 기독교라는 종교 요소를 통해 인지되는 껀잉족 집단과 분리된 독자적인 종족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성향이 짙었다. 그들은 특히 이러한 종교적 요소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바탕으로 내세우며 195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종족 명칭을 껀야(Kayah)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림 2> 껀잉니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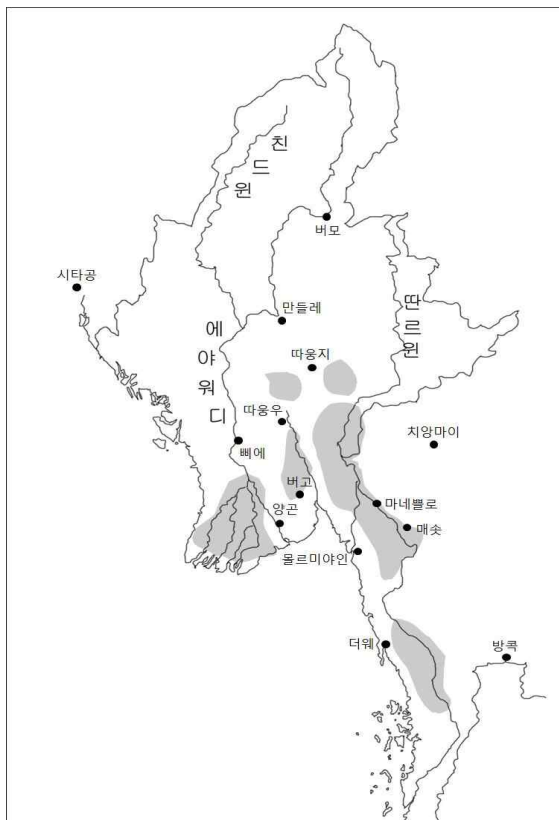
그러나 원래 껀잉니족은 독립 이전까지 대부분이 정령신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독립 이후 껀잉니족의 정체성을 부여해준 상좌부불교라는 종교적 요소는 일종의 공통된 의식(儀式)과도 같은 것이었다. 뒤르캥(Durkheim)은 신앙, 특히 의식을 개인 간의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강조하였다. 즉, 한 집단의 사회구조가 의례나 신화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관을 통해서 강화 및 유지되는 방식을 강조한다. 껀잉족의 경우에도 이

러한 의식적 행위를 강조함을 통해 종족적 실체를 형성하고 종족적 유대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상좌부불교로의 개종은 일정한 종교적 원리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지속성도 결여되어 있는 단순한 민속 종교 및 부족 신앙의 차원인 애니미즘의 종교적 성질로 인하여 독립 이후 자신들의 종족적 유대를 좀 더 강화하고 대중교인 기독교와 대별되는 좀 더 강화된 차원의 의식이 표현되는 종교를 (비록 정령신앙과 혼합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함으로써 꺼잉니족만의 공통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된다.

3) 거주지역에 따른 분류

꺼잉족은 거주지역도 매우 다양하다.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꺼잉족의 거주지역은 미얀마 하부지역인 에야워디(Ayeyawaddy) 델타유역과 싯따웅(Sittaung)강, 탄르윈(Thanlwin)강 유역, 서남부 해안지역, 그리고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지역인 산악지대 등 넓게 산재하여 분포한다. 쁘족은 주로 해안지대에, 스고족은 에야와디 델타유역에, 브웨족은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하위 집단 간에는 언어, 종교, 의식주 같은 물질생활의 전통, 생계경제의 유형, 전통관습 등 문화적 요소의 차이도 심하다. 특히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브웨족과 빠오족은 평야지대에 거주하는 쁘족과 스고족과는 확연히 구별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고산지대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농경방식에도 차이를 갖고 있어 인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주변종족과의 접촉을 통해 외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부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데에 기인한다.

<그림 3> 꺼잉족의 분포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꺼잉족에 대한 기록은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사임즈(Symes)의 『잉와왕국 사절단 기록』에서는 꺼잉족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관찰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사임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사절을 1795년 콩바웅왕조의 왕도인 어머니라뿌라(Amarapura)에 파견하였다. 현 방글라데시 칫타공 지역 인근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과 함께 통상조약의 체결 및 프랑스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얀마에 입국하여 체재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1795년 2월 21일 콜카타를 출발하여 3월 19일 양곤에 도착하여 한따워디(Hanthawaddy)에 들렀다가 양곤으로 돌아와 5월 27일 왕도 어머니라뿌라로 출발하였다. 사임즈의 꺼잉족에 관한 기술은 한따워디에서 양곤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 그곳에 체재하고 있었던 가톨릭 신부 빈젠조 산제르마노(Vincenzo Sangermano)에게서 전해들은 다음의 이야기로 나타난다.

꺼잉족은 이 나라의 여러 곳, 특히 달라의 서쪽과 베타잉에 살고 있고, 양곤의 부근에도 몇 개의 집락촌이 있다. 그(산제르마노)에 의하면, 꺼잉족의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되

어 있어, 타 집단을 배제하여 다른 종족과는 같이 살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 (중략) 최근 그들은 버마족의 지주들로부터 과중한 세금 징수로 압박을 받고 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여카인 산지로 도피하고 있다 (Symes 1800: 207).

이 기록으로 보아 꺼잉족의 거주 형태는 고립되고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 견딜 수 없어서 각지로 도피하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꺼잉족의 거주지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꺼잉족은 현재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태국 변방의 산간지역에도 분포한다. 영국 식민지배 당시 식민정부는 수출경제라는 명목 아래 에야위디강 델타지역의 개척을 통한 쌀 생산 장려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상부버마(Upper Burma)에 거주하던 버마족을 대거 남부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들어 꺼잉족의 정착지역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꺼잉족의 상당수는 이미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인 공바웅왕조(1752-1885)의 성립 이전부터 에야위디 델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이곳에 정착해 있었다. 식민정부의 개발이 시작된 이후 버마족의 유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꺼잉족의 생활공간의 잠식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때 상당수의 꺼잉족이 서쪽 산간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는데 일부는 태국 국경을 넘어서 이동한 것 같다.

꺼잉족의 이러한 태국 국경지대로의 이동은 미얀마 독립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의 식민지배 종식에 따라 버마족 중심의 독립 논의가 진행되는 데에 따른 꺼잉족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결성된 KNU는 1962년 발생한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네윈(Ne Win)의 등장 이후 줄곧 미얀마 정부군의 총공세를 받아왔다. 미얀마 정부군의 무자비한 공세와 함께 발생한 KNU 내부의 분열로 인해 수많은 꺼잉족 피해자들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인 매솿(Mae Sot) 지역 등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 지역은 현재에도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곳이다. 또한, 1996년 이후 미얀마 군사정부는 소수민족 반정부 무장집단의 배후지로 여겨졌던 미얀마 동부 산지의 정부통제권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정부군 병력을 파견하였고, 군사작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민간인 거주지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자행하였는데 이때에도 수많은 꺼잉족이 강제 이주 당하였다. 2006년 한 해에만 약 76,000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였고, 그 중에서 주로 꺼잉주와 버고(Bago)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약 43,000명의 꺼잉족들이 집단 이주를 당하였다 (TBBC 2007). 이렇게 강제 이주된 꺼잉족 난민들은 태국음식을 먹고 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도 하는 등 미얀마 내 거주하는 꺼잉족 집단과 언어적 측면, 생계경제 유형, 의식주의 양상 등 문

화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에 있어서 꺼잉족의 종족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되고 있다.



3. 협의적(狹義的) 개념

1) KNA의 결성배경과 종족적 함의

앞 장에서 살펴본 꺼잉족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들을 개념화하는 데 동원되는 요소들도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여러 인류학적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꺼잉족을 정의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미얀마의 꺼잉족을 일컬을 때 편의상 기독교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격렬히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반정부 무장 세력의 중심에 서있는 KNU 같은 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KNU의 구성원들이 실제 꺼잉족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하위집단 출신들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KNU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꺼잉민족협회(KNA, Kayin National Association)는 1852년 제2차 영국-미얀마식민전쟁이 종식된 후 조직되었다. 이 협회는 꺼잉족의 언어, 전통관습, 종교를 불문하고 전체 꺼잉족의 공통의 정체성을 꾀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협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떠닝다이 거주민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떠닝다이에 거주하는 꺼잉족은 이 지역이 미얀마와 태국에서 발흥한 왕조 세력이 충돌한 곳이어서 끊임없는 외세의 영향을 받아 생활 자체가 피폐해져 있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영국 식민세력과의 조우는 이 지역의 꺼잉족에게는 기존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떠닝다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824년 제1차 영국-미얀마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할양받은 지역으로 이 당시 영국인 관리들의 관할지였다. 떠닝다이는 세 개의 관구(district)로 분할되고 각 관구마다 부판무관이 파견되었는데 이때 영국 관리들이 꺼잉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을 갖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꺼잉족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시로는 신생(新生) 꺼잉들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KNA는 처음에는 협소한 단위의 꺼잉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KNA는 처음에는 꺼잉족의 통합을 위한 의식을 증진시키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며,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꺼잉족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 거세진 버마족의 민족주의 항거에 직면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는 단체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통시대와는 달리 꺼잉족의 일부, 혹은 신생 꺼잉들이 예전에는 없었거나 희미했던 자신들

의 종족정체성을 강조하며 집단화하기 시작한 초기의 배경에는 영국의 식민지배원리가 관계하고 있다. 영국은 ‘분할통치(divide and rule)’라는 식민지배 원리를 통해 다수종족인 버마족 집단과 변방의 소수종족 집단을 구분하여 통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버마족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종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식민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기용된 집단이 꺼잉족이었다. 이것은 이미 제2차 식민전쟁이 종식된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통치 방식으로, KNA의 결성 같이 꺼잉족의 종족성에 대한 인지(認知)는 바로 이러한 식민통치방식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아마도 전통시대에는 버마족의 수탈로부터 고통 받던 피지배계층의 꺼잉족이 영국식민정부의 행정적 혜택으로 인해 그들 사회에서 직면해온 여러 사회적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이제는 역(逆)으로 버마족을 통제하는 관리계층으로 등극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미개한 부족이 아니라 버마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차원의 종족이라는 신념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념은 나아가 자신의 종족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 더불어 주로 떠닝다이를 중심으로 미얀마 하부지역에 산재해 있던 여러 타종족들도 꺼잉족으로 종족정체성을 전환시킴으로써 자신도 버마족의 관리계층으로 상승되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KNA의 결성으로 꺼잉족의 영국 식민행정 제분야의 진출은 더욱 용이하였고, 이로 인하여 식민정부의 견제로 인하여 제도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버마족과의 불씨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미얀마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호간의 차단되고 분리된 종족집단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버마족과 소수종족과의 관계는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대립구도로 발전하였다.

2) KNU의 결성배경과 종족적 함의

미얀마의 독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기독교 꺼잉족의 지도자들은 해양에 인접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하부 미얀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별도의 자치주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당시의 혹독한 비난을 받아 뽕롱회담(Panglong Agreement)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도 거부하였다. 상당수의 꺼잉족의 경우 식민지배기부터 간접지배의 영역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꺼잉족 인구 분포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기독교 꺼잉족을 제외한 다른 꺼잉족은 꺼잉니족과 같이 별도의 정체성을 확보했거나,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꺼잉족의 종족적 의식이 희박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교적으로도 정령숭배 또는 불교도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도시 중산층의 기독교 꺼잉족을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도층 인사가 기독교가 대부분인 KNU의 결성과 이념에 반대하여 꺼잉청년기구(Kayin Youth Organization)가 아웅산 장군이 주도하는 AFPEL에 합류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꺼잉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뽕롱회담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1947년 2월 5일에 꺼잉족 지도자들은 양곤에 모여 분산된 꺼잉족의 정치적 활동을 통합하는 KNU를 결성하고, 초대 의장으로 소바우지(Saw Ba U Gyi)를 선출하였다. 소바우지는 절대 불굴복, 별도의 꺼잉주 건설, 무장봉기, 꺼잉족의 정치운명의 자체 결정을 KNU의 4대 원칙으로 내세우고 미얀마 신생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에는 KNU의 군사조직인 꺼잉족 방위군(Kayin National Defence Organization, 이하 KNDO)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대비하였다. KNU가 요구하였던 별도의 꺼잉주는 주로 꺼잉족이 거주하고 있는 떠닝다이주를 포함하는 하부 미얀마의 5개 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무산되고 1948년 말에 발생한 꺼잉족과 버마족의 충돌사건에 이어 미얀마 정부군의 꺼잉족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KNU는 본격적인 반정부 무장활동에 들어갔다. KNU는 1949년 3월 20일에는 따웅우에서 국명을 ‘꼬똘레(Kawtoolei)’로 하는 독립국가를 정식으로 선포하였고, 그 해 6월에는 꺼잉족 군사조직을 꼬똘레국군으로 통합하였다. 1952년에 미얀마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 한 꺼잉주가 미얀마정부의 헌법 개정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KNU는 여전히 에야 워디 델타지역이 제외된 점을 들어 협상을 거부하였다. 1962년부터 본격화된 미얀마 정부군의 KNU에 대한 지속적인 총공세로 KNU는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다. 게다가 KNU를 제외한 여타 소수종족 반정부 무장조직의 대부분이 미얀마 정부와 평화협상을 체결한 상태에서 고립의 상태가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KNU의 결성과 KNU를 중심으로 하는 꺼잉족 종족 정체성의 구축 및 분리주의 운동의 전개는 여타 꺼잉족 전체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전통시대에는 생소한 개념이었던 종족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더욱 활발히 일어났다. 기독교도로 개종한 꺼잉족의 경우는 대부분 KNU의 분리주의 이념에 자연스럽게 동참하였지만, 여타 꺼잉족 하위종족집단, 특히 불교도 하위종족집단들의 경우는 KNU가 대부분이 기독교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꺼잉족의 종족정체성을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꺼잉니족의 경우 그들이 착용하는 붉은 색깔의 의복과 상좌부불교도라는 종교 요소를 강조하며 기독교로 개념화된 꺼잉족에서의 분화를 주장했던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꺼잉족의 종족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꺼잉족을 떠올릴 때 우리는 미얀마 독립 이후 결성된 KNU 같은 정치적 집단을 먼저 떠올리며, 동시에 그들이 기독교도라는 종교적 특징에만 주목하였다. 그들은 미얀마 내에서 분리주의를 주창하며 무장 세력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집단으로, 세계 언론에 종종 언급되거나 인류학계나 역사학계나 지역연구자들 사이에서 단골손님으로 맞아들여온 탓에 마치 미얀마 꺼잉족의 정체성은 KNU와 기독교로 규정할 수 있는 듯이 한정되어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했듯이 꺼잉족은 실제로 매우 다양한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거주지역도 광범위하고, 그들 간의 언어, 종교, 의식주 같은 물질생활의 전통, 생계경제의 유형 등 문화적 차이도 심한 이질적인 문화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흔히 등장하는 꺼잉족이란 용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 어떠한 범주의 꺼잉족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꺼잉족의 종족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느슨해서 종족의 범위를 어떤 요소를 통해 한정시켜서 볼 것이냐는 문제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언어계통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들을 꺼잉족이라고 통칭하는 데에는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에 더불어 미얀마어만을 구사하는 꺼잉족의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꺼잉족의 정체성과 그 범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을 들어 꺼잉족의 하위집단들을 별개의 종족으로 각각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꺼잉족에 대한 종족성 규명은 단순한 원초적 유대(primordial attachment)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주변 종족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꺼잉족의 종족성은 이토록 혼란스런 개념을 띠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장식. 1995. “미얀마 까렌족의 분리주의 운동.” 『동남아연구』 4: 255-282.
- 이상국. 2008. “이주민, 비합법성, 그리고 국경사회체제: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사회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1): 118-125.
- Adas, Michael. 1974. *The Burma Delta: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on the Asian Rice Frontier. 1852-1941*. Wisconsin: Wisconsin University Press.
- Baldwin, J. W. 1949. “The Karens in Burma.” *Journal of the Royal Central Asian Society*. 34: 102-113.
- Benedict, Paul K. 1972. *Sino-Tibetan: A Conspect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nison, J. J. 1933. *Census of India, 1931. (Burma Part I -Report)*. Rangoon: Govt. Printing and Stationery.
- Boucaud, Andre and Louis Boucd. 1988. *Burma's Golden Triangle: On the Trail of the Opium Warlords*. Bangkok: Asia 2000.
- Brailey, Nigel J. 1970. “A Re-Investigation of the Gwe of 18th Century Burm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2): 33-47.
- Cady, John F. 1958. *A History of Modern Burm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urkheim, Emile. 2001.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urnivall, J. S. 1956. *Colonial Policy and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s Indi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Gravers, Mikael. 2007. *Exploring Ethnic Diversity in Burma*. Malaysia: Nanas Press.
- Hall, D. G. E. 1968. *History of South East Asia*. London: Macmillan.
- Hamilton, James W. 1976. *Pwo Karen: At the Edge of Mountain and Plain*. St. Paul: West Publishing.
- Keenan, Paul. 2008. *Saw Ba U Gyi: Voice of the Revolution*. Electronic Edition. Karen History and Culture Preservation Society.
- Keyes, Charles F. 1977. *The Golden Peninsula*.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Keyes, Charles F. ed. 1979. *Ethnic Adaptation and Identity: The Karen on the Thai Frontier with Burma*. Philadelphia: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 LeBar, F. M., G. C. Hickey, and J. K. Musgrave eds. 1964. *Ethnic Groups of Mainland Southeast Asia*.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
- Linter, Bertil. 1994. *Burma in Revolt: Opium and Insurgency Since 1948*. Boulder: Westview Press.
- Marshall, Harry I. 1922. *The Karen People of Burma: A Study in Anthropology and Ethnology*.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 Min Naung, U. 2000. *National Ethnic Groups of Myanmar*. Yangon: Thein Myint Win Press.
- Selected Correspondence for the Years 1825-26 to 1842-43 in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Tenasserim Division*. 1929. Rangoon: Government Printing and Stationery.
- Smith, Martin. 1991. *Burma: Insurgency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London: Zed Books.
- Symes, Michael. 1800. *An Account of an Embassy to the Kingdom of Ava, Sent by the Governor-General of India, in the Year 1795*. London: W. Bulmer and Co.
- TBBC. 2007, Oct. 19. Internal Displacement in Eastern Burma: 2007 Survey. *IDP Report*. Retrieved April 25, 2008. <http://www.tbbsc.org>.